인벤테라 (0007J0)

INV-002, 본격적인 실적의 시간

ARIS
더 많은 보고서는 텔레그램 채널로
@ARIS1031

Info

기업탐방 일자	2026.08.20
발간 일자	2026.10.20
투자의견	N/R

Company Data

시가총액	776억원
상장주식수	7,865,714주
액면가	500원
외국인 소진율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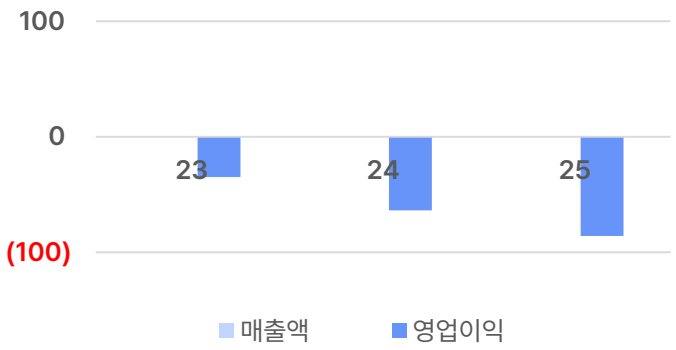
Report Summary

- 2018년 설립. 2026년 코스닥 상장
- 26년 4분기 INV-002 품목허가 신청을 통한 조영제 사업 본격화
- 국내 조영제 선두기업 동국생명과학과의 파트너십 체결
- Invinity™ 플랫폼 기반 ADC로 사업 영역 확장 기대
- 2028년부터 흑자전환 예상

매출 비중(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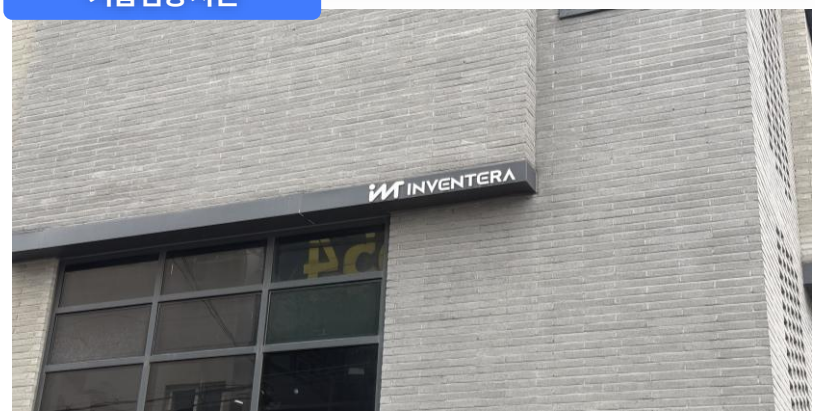


최근 3개년 매출 추이(개별)



자료 : 인벤테라 **단위** : 억원

기업 탐방 사진



Analyst

우채연
claire48115@naver.com
이재모
charisma38@naver.com

ARIS
INDEPENDENT
Analysis • Research
Investment • Stock

인벤테라(0007J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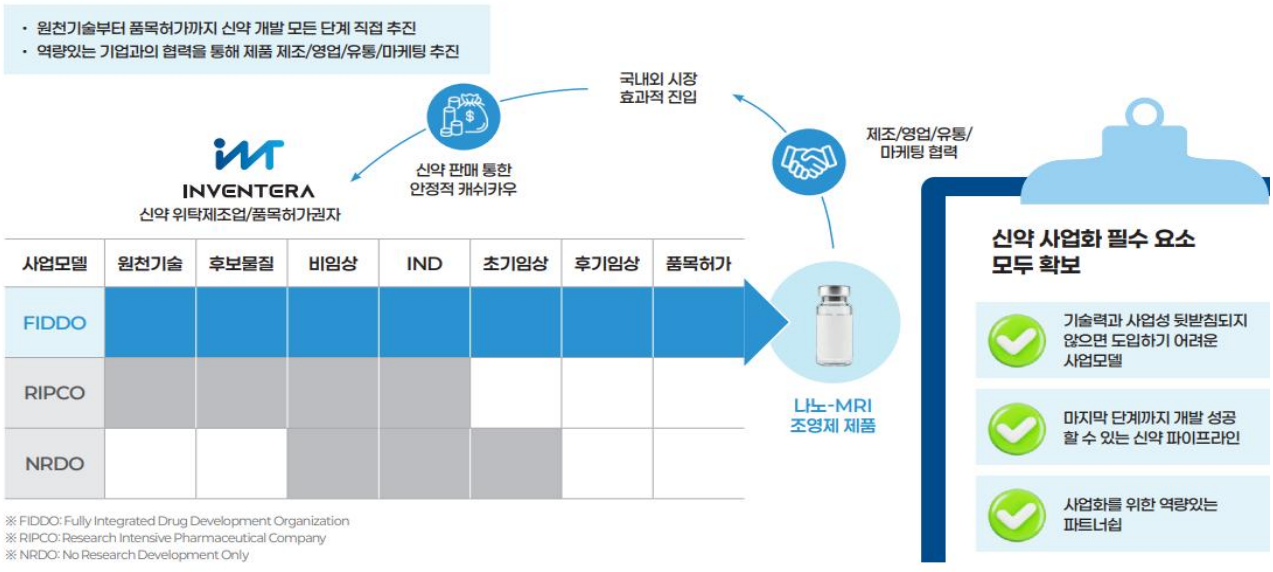
기업 개요

인벤테라는 2018년 설립된 나노의약품 개발 전문 바이오텍으로, 2026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동사는 자체 개발한 나노구조체 기술 플랫폼 Invinity™를 바탕으로 MRI 조영제부터 ADC까지 플랫폼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2026년 2분기 기준 파이프라인의 기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어 아직 매출 발생 이전 단계에 있다. 주요 주주는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신태현(18.34%)과 공은아(11.08%)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9.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사업의 개요

동사는 신약의 자체 상업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바이오텍의 경우, 신약 개발 이후 타 제약사에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계약 성사 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으나, 기술이전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실적 가시성이 낮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신약의 기술력과 관계없이 개별 계약의 성사 여부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반면 동사는 기술이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신약의 국내 상업화를 통해 선제적인 매출원을 확보하고자 한다. 특히 직접적인 제품 판매를 통해 신약의 시장성과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이렇게 확보한 상업화 성과는 향후 L/O 과정에서 신약의 사업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동사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활용해 신약 상업화의 추진하고 있다. 동사가 신약 개발 및 임상을 주도할 때, 생산 및 유통을 파트너사가 담당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를 통해 개발 단계에서 확보한 기술력을 실제 상업화로 빠르게 연결하는 동시에, 파트너사의 역량을 활용해 상업화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인벤테라 사업 모델



자료 : 인벤테라

인벤테라(0007J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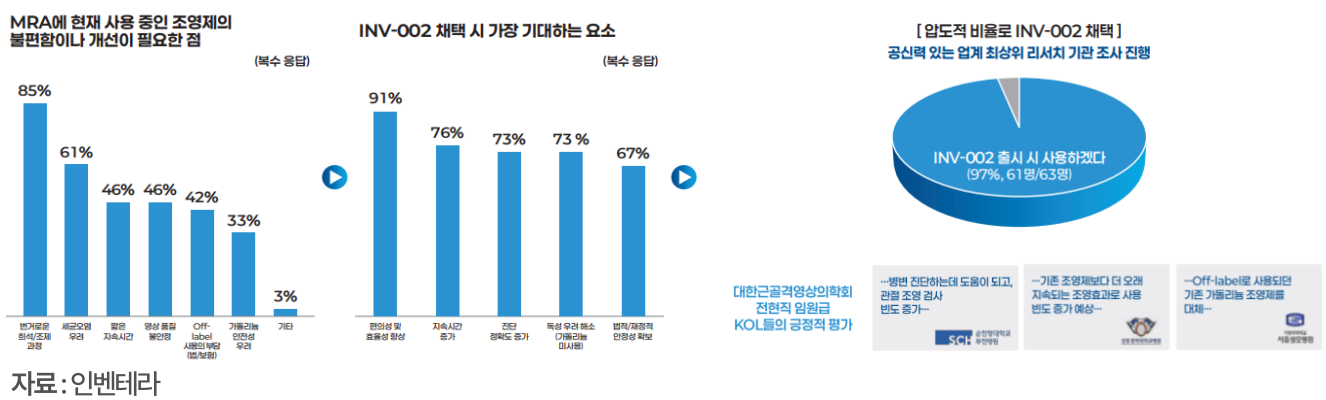
상용화에 가까워진 INV-002

INV-002는 MRI 촬영에 사용되는 조영제로, 근골격계를 타깃으로 한다. 조영제는 투여 시 MRI 영상의 선명도를 높여 미세 병변의 진단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그러나 현재 범용성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특정 질환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실제로 근골격계 질환용 조영제가 존재하지 않아, 병원에서는 정맥주사용 조영제를 희석해 관절 내에 주입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미충족 수요가 존재하는 가운데, 전 세계 근골격계 질환 시장 규모는 2030년 약 2.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동사의 INV-002가 상용화될 경우, 세계 최초의 근골격계 조영제로서 해당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INV-002가 기존 조영제의 진단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INV-002는 별도의 희석 과정 없이 바로 투여할 수 있으며, 기존 조영제 대비 최소 4배 이상 지속되는 조영 효과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기존 MRI로는 확인이 어려웠던 회전근개병변, 관절와순파열 등 다양한 미세 병변의 진단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실제로 임상 3상에 참여한 83명의 환자 중 총 23건의 병변이 INV-002에 의해 새롭게 확인됐다. 따라서 INV-002는 기존 조영제를 대체하는 동시에, 미세 병변까지 진단 영역을 확대하며 새로운 조영제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INV-002는 2027년 여름 품목허가 승인을 목표로 상용화를 위한 마지막 절차에 돌입했다. 임상 3상 종료 후 지난 9월 임상시험 결과보고서(CSR)를 수령한 상태이며, 올해 4분기 중 품목허가 신청(NDA)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심사는 통상적으로 약 24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2027년 여름 이후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동사는 허가 이후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사전 재고를 확보하는 한편, 전담 PM을 배치해 주요 병원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임상 3상 설계 단계부터 국내 주요 빅4 병원을 포함한 다수의 대형병원에서 임상을 진행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시장 침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INV-002에 대한 현장 의료진의 수요



자료 : 인벤테라

인벤테라(0007J0)

상용화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동사는 신약의 효율적인 상업화를 위해 동국생명과학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신약 생산을 위한 자체 생산시설을 구축할 경우 막대한 초기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나, 동사는 INV-002의 생산을 동국생명과학이 담당하면서 CAPEX 부담을 크게 낮췄다. 동시에 시장규모 및 판매수량을 사전에 합의함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동국생명과학에 공급하는 구조를 확보했다. 이에 최종 병원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합의된 물량에 대한 1차 매출이 발생하며, 상업화 이후 현금흐름의 가시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INV-002의 판매량 증가에 연동해 경상 기술료가 발생하는 구조인 만큼, 시장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때 동국생명과학이 국내 조영제 시장에서 선두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과거 조영제 시장은 외국계 기업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으나, 제네릭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국내 병원 영업망을 확보한 동국생명과학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됐다. 이에 동사는 국내 조영제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동국생명과학의 영업망과 유통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INV-002 상용화 시 공격적인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네릭 중심의 시장 구조에서 수익성 높은 오리지널 제품 확보가 필요한 동국생명과학 입장에서도 INV-002의 판매 확대에 대한 유인이 존재한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이와 함께 동사는 LG화학과 원료의약품(API) 공급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는 완제품과 원료의 제조소를 분리해 특정 기업의 생산 차질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동시에 LG화학은 미국 FDA 실사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수준의 품질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INV-002의 판매 확대에도 안정적인 원료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시점 동사는 주요 파트너십을 통해 생산부터 판매까지 상업화에 필요한 사업 기반을 이미 구축한 상태다.

➢ 동국생명과학과의 파트너십



자료 : 인벤테라

인벤테라(0007J0)

INV-002 이후를 이끌 성장 동력

동사는 INV-002 외에도 림프계 질환 조영제인 INV-001을 후속 파이프라인으로 보유하고 있다. INV-001은 기존 조영제가 림프관과 정맥에 동시에 흡수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림프계에 선택적으로 흡수되도록 설계된 조영제다. 현재 국내 2a상을 진행 중이며, 올해 임상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 임상 결과에 따른 추가 모멘텀이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 2월 FDA로부터 임상 2상 IND 승인을 획득하며 미국 2상 진입도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까지 안전성 및 주요 유효성 지표에서 유의미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향후 임상 결과에 따라 기술이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속 파이프라인으로 판단된다.

한편, 동사는 다양한 약물을 탑재할 수 있는 자체 기술플랫폼 Invinity™을 보유하고 있다. Invinity™에 철을 탑재한 것이 INV-002를 비롯한 MRI 조영제이며, 저분자 약물을 탑재하면 Drug Conjugate, 항체를 탑재하면 ADC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다. 또한, Invinity™은 물에 잘 녹는 다당류 기반 구조를 갖추고 있어 단독으로는 체내 전달이 어려운 소수성 저분자 약물을 탑재해 약물 전달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동사가 조영제에서 치료제 분야로 플랫폼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기반이 된다.

실제로 동사는 소수성 면역항암제인 TLR Agonist(TLRA)를 Invinity™에 탑재해 In-vivo 수준에서 기존 대비 약 2배 높은 약효와 독성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개념검증(PoC) 단계에서 기존 ADC의 일반적인 약물 탑재량인 2~8개 대비 68~82개의 높은 약물 탑재량을 확보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또한 약물을 암세포 내에서 선택적으로 방출해 전신에서 비특이적 반응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미국·유럽에서 관련 특허 출원을 완료했으며, 후속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향후 비임상 단계 진입 시 임상 성과에 따른 ADC 사업 확장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Invinity™-ADC 구조



자료: 인벤테라

실적 전망

① 2026년 2분기 매출액 0억 원, 영업이익 -24.9억 원, 당기순이익 -22.6억 원 기록

INV-002 상용화 비용 및 후속 파이프라인 R&D 투자 지속

금융수익 발생으로 영업손실 대비 순손실 규모는 축소

① 2027년 매출액 42억 원, 영업이익 -97억 원 예상

2027년 국내 매출 41억원, 경상 기술료 1억원 전망

IPO 관련 상장 비용 및 주식보상비용 등 일회성 비용 반영으로 2027년에도 적자 지속

LG화학과의 파트너십 기반 원료비 절감을 통해 2028년 흑자전환 목표

2028년 수출 매출 54억 원 및 글로벌 L/O 기술료 유입 기대

최근 3개년 매출 추이(개별 기준)

	2024	2025	2026(E)
매출액	0	0	0
영업이익	-63.7	-86.0	-61.5
당기순이익	-60.4	-80.5	-

자료 : 독립리서치 ARIS

단위 : 억원

체크포인트 및 리스크요인

➢ INV-002 상업화 이후 시장 침투 속도

INV-002의 매출 성장을 위해서는 향후 병원 및 의료진의 채택 확대가 필수적이다. 신규 조영제가 기존 제품을 대체하며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허가 이후 실제 처방 확대 속도가 동사의 실적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플랫폼 확장성은 아직 검증 단계

Invinity™은 소수성 약물의 전달 개선과 높은 약물 탑재량을 바탕으로 ADC 등 치료제 분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성과는 개념검증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실제 임상에서 약효가 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Compliance Notice

-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용일 뿐 해당 주식에 대한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투자 판단은 본인 스스로 하며, 투자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동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당사는 해당 자료를 전문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작성자는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을 발간 전에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발간 후에 매수·매도할 수 있습니다.
- 동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아리스(ARIS) 에 있습니다.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사 및 복제, 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